ESG snapsh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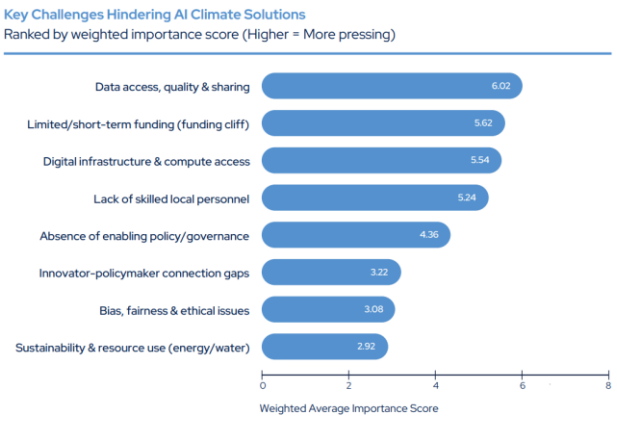
미래산업/미드스몰캡. 나승두

AI는 탄소 배출 저감에도 활용된다 – 안탈리아 AI 서약

2026-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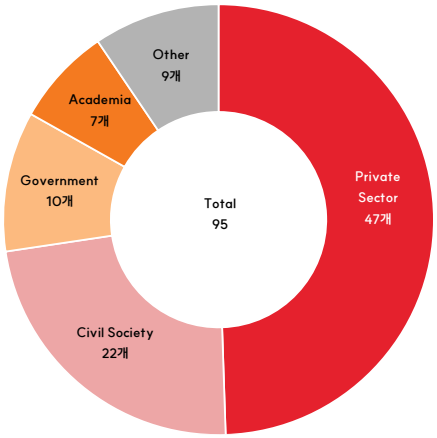
- COP31 의장국 튀르키예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함께 마련한 안탈리아 AI 서약
- AI 및 ICT 환경 영향을 국제기구가 의제화 했다는 점에서 의의, AI 데이터센터의 환경 영향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
- 2024년 COP29의 녹색 디지털 행동 선언(Green Digital Action)으로부터 시작
- 급성장하는 AI를 탄소 배출 저감 및 기후 솔루션으로 활용 하되, AI 자체의 탄소 발자국도 줄인다는 두 가지 목표가 핵심
- ① AI 인프라 무탄소/저탄소 전원 조달 및 효율적 냉각 시스템 구축, ② 생애주기 전반 책임 있는 설계 및 조달 선순환 구축
  ③ AI 인프라 환경 영향 측정 및 공개, ④ 개발도상국 AI 접근 지원
- 자발적/비규범적 합의라는 점에서 당장의 새로운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님, 심사나 제재 없고 서명자가 직접 목표 선택하는 방식
- 이번 COP31에서 AI 서약(Antalya AI Pledge) 공식적으로 출범 했지만, 서명 국가는 9개에 불과, 빅테크 기업들의 참여도 저조
- 우리나라는 글로벌 주요 AI 사용국 중 유일한 정부 서명국이라는 평가, 나머지는 AI 산업 연관성 아직 크지 않은 국가들
- 우리나라가 서명국으로 참여함으로써 향후 국내 IDC 사업자들의 사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전력/물/무탄소 전원 확보, 폐열 활용 등 실질적 사업적 영향은 물론 2028년으로 예정된 KSSB 공시 등에도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글로벌 AI 최대국인 미국의 불참, 공식적인 구속력 부재 등으로 인해 당장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글로벌 규제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사전 준비 필요할 것(2030년까지 COP 마다 정책 점검 예정)

AI 기반 기후 솔루션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들



자료: UNFCCC(AI4Climate action initiative, SK증권

안탈리아 AI 서약(Antalya AI Pledge) 참여 기관/단체/기업 현황



<Government>
Republic of Korea
Luxembourg
Germany
Brazil
Turkiye
...

<Company>
AMD
Lenovo
Nokia
Orange
Alibaba
Viro AI
Opticloud
Greensparc
Telefonica
...

자료: ITU, SK증권

COMPLIANCE NOTICE

작성자(나승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판단 3단계(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